

全國을 1분 情報流通處理圈化

賦存資原 本格探查 技能大學設立推進 科學財團의 設立推進 國家的 大型課題擔當

朴正熙대통령은 1월 30일 科學技術處 年頭순시를 실시하였다. 이날 崔亨燮長官은 1976年 科技處 業務計劃을 報告하는중 지역사회개발, 장기적 식량및 에너지資源需給, 全國규모의 컴퓨터網 확대, 정부의 行政業務 電算化 여권 병무 주민등록등 민원업무의 電算化등 시스템개발과 情報產業의 育成등으로 「全國을 1분 情報流通處理圈化」하겠다고 朴正熙大統領에게 報告하였다.

崔長官은 技能감독 및 管理者의 輩出을 爲한 技能大學法 제정을 推進, 오는 77년 技能大學을 滿足시키고 科學財團의 設立을 爲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 이를 第4次 5個年 計劃事業으로 推進하겠다고 報告했다.

또한 崔長官은 우리나라 產業의 國際競爭力을 培養키 爲해 先進技術을 導入, 이를 土着化하고 國內技術 用役을 育成하여 우리技術로 工場建設을 推進토록 하며 戰略産業 研究機關의 設立및 大德研究學園都市의 建設等으로 重化學工業의 基盤을 構築하고 原子力 에너지技術開發로 에너지의 안정공급體制를 確立하겠다고 말했다.

崔長官은 中央관상대가 77년부터 極東全域의 구름寫眞과 地表온도등 停止氣象 衛星자료를 30分 간격으로 수신하여 기상예보의 精確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하고 科學技術研究所는 과거의 현장지향적 계약연구및 短期課題等을 擔當해 왔으나 앞으로는 中間材의 開發, 機械類의 國產化, 技術集約的 輸出 新製品의 創出等 國家的 大型課題및 綜合的 長期課題를 擔當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崔長官은 科學技術 學會및 團體의 育성과 國際學術交流 等을 支援하고 科學技術 用語의 표

준화, 科學技術用語集을 今年에 發刊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崔長官은 汎國民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새마을運動에 있어서 農漁民, 知識人, 科學技術人의 區別이 있을수 없다고 말하고 科學技術人들의 自發的 參與에 依하여 結成된 全國 9個道 새마을技術奉仕團 1200餘名을 통해 새마을 現地指導를 더욱 強化하고, 이미 成果를 挙우고 있는 「한마을 한 科學技術者」 技術結緣指導事業을 擴大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 技術奉仕團은 所得增大에 重點을 두고 現場으로부터의 書信問議指導와 新聞 放送 固定 프로그램을 통한 技術普及을 實施하고 있으며 지난해 延 3000餘名の 科學技術人들이 새마을 現地指導를 實施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所得增大의 길잡이가 될 營農, 農業機械, 保健衛生 等を 收錄한 「새마을 技術便覽」이 發刊 普及하였음을 보고했다.

이날 朴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天然資源의 貧弱한 나라라고 生覺해 왔는데 最近에 우리나라에도 相當한 賦存資源을 갖고 있고 있지 않느냐 철저한 조사를 하면 상당한 자원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하고 商工부와 協議 國立 鑛物地質研究所의 業務를 科學技術處에서 協調하고 앞으로 技術革新에 主力, 모든 技術者의 頭腦가 總動員할것과 本格的인 資源探查를 爲해 科學技術處가 調查하는 技能을 擔當하라고 했으며 3月末까지 業務限界를 研究 報告토록 指示하였다.

이날 朴대통령은 KIST가 開發한 自動電子交換機를 直接시험해 보았다.